

제국주의와 민족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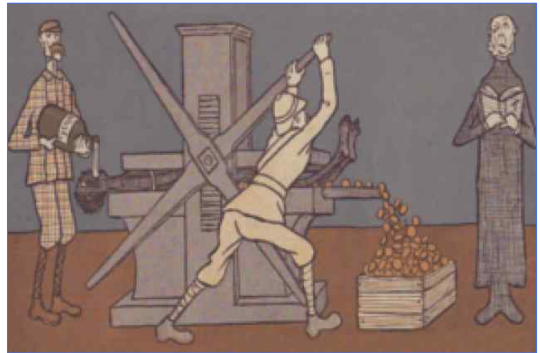
[★제국주의(帝國主義, imperialism)의 등장]

01. 정의

- 1880년 전후 등장한 서구 열강의 침략적 민족주의

02. 등장 배경

- 독점적 자본주의 출현
 - : 원료 공급지, 상품 판매 시장 확보
 - : 잉여 자본의 투자 시장 필요
- 만국박람회(= 엑스포) 개최
 - : 런던(1851), 필라델피아(1876), 파리(에펠 탑, 1889)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수탈>

03. 발전

- 민족주의와 결합
 - : 제국주의적 침략 정책이 민족의 자존심과 권위를 세워 준다고 생각하여 적극 지지
- 사회 진화론 유행
 - : 스펜서(Herbert Spencer, 1820 ~ 1903)

사회도 생물과 같이 하나의 유기체이며, 생물 유기체가 활동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발전 법칙처럼 사회도 적응과 도태를 통해 저급의 상태에서 고급, 우등의 사회로 발전한다.

- : 다윈의 자연 선택(『종의 기원』, 1859)을 사회에 적용
- : 제국주의의 이론적 바탕 제공
 - ↳ 우월한 나라가 열등한 나라를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

• 인종주의

- : 백인종이 황인종과 흑인종보다 우월하다고 주장
- : 비유럽 지역 = 야만 지역
 - ↳ 크리스티교와 유럽 문명을 전파하는 것을 백인의 신성한 의무이자 봉사로 미화



<피어스 비누 광고>

04. 영향

-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서양 열강의 치열한 경쟁
- :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새로운 나라가 참여하여 경쟁 심화

영국은 넘쳐 나는 인구를 해결하기 위해 새 영토를 개척해야 한다. 또 공장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팔기 위해 새로운 식민지가 필요하다. - 영국의 케이프 식민지 총독, 세실 로즈(1853 ~ 1902)

- 배타적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국제적인 대립으로 확대

제국주의와 민족 운동

[★제국주의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

나는 방대하고 비옥한 아프리카 대륙이 신비의 베일을 벗고 유럽인의 경제생활에 유용한 상업 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 …… 나의 기록이 미지의 대륙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촉진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리빙스턴의 『남아프리카 전도 여행기』(1856)

01. 배경

- 탐험가 리빙스턴(1813 ~ 1873)과 스탠리(1841 ~ 1904)에 의해 아프리카의 내륙 사정이 유럽에 소개

▶ **러디어드 키플링, 『백인의 짐』(『수능 특강』, p.130)**

02. ★분할

백인의 짐을 져라 / 야만적인 전쟁을 평화로 바꾸고 / 기아로 허기진 입들을 먹이기 위해 / 질병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 / 그리고 네가 너의 목적을 달성할 때쯤 / 너를 원하는 다른 미개인들을 위해 / 나태와 이교도의 어리석음을 경계하라 / 그들의 광기를 끝장낸다는 희망을 가지고 말이다.

1) 영국

• 종단 정책

: 수에즈 운하 관련권 장악(1875), 이집트 보호국화(1882), 보어 전쟁(1899 ~ 1902), 케이프 식민지를 남아프리카 연방으로 조직(1910)

- **3C 정책**[케이프타운(Cape Town) ~ 카이로(Cairo) ~ 캘커타(Calcutta)]

2) 프랑스

• 횡단 정책 추진

: 알제리 장악, 튀니지 보호령화
: 사하라 사막 확보, 콩고 분할(~ 벨기에)
: 마다가스카르 섬 차지

3) 벨기에

- 레오폴드 2세(재위 1865 ~ 1909)
: 영국과 포르투갈의 연합 세력 격퇴(1884 ~ 1885)
↳ 중앙아프리카의 콩고에 대한 영유권 선언

4)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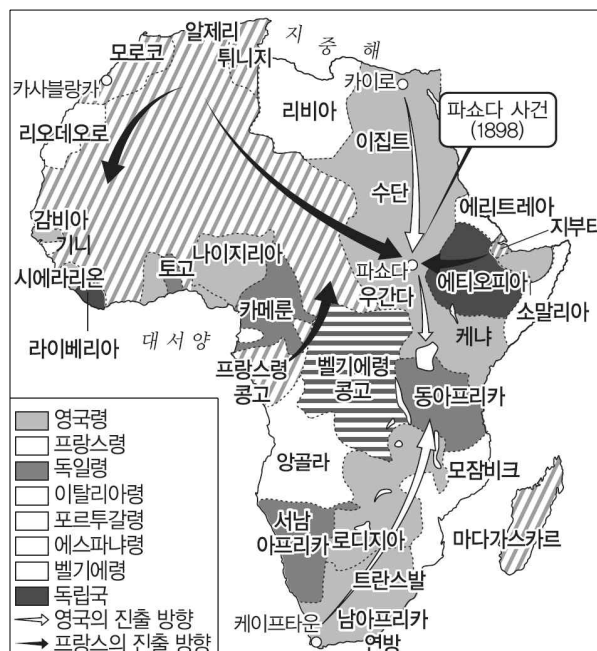
- 동아프리카와 서남아프리카, 토고·카메룬 등 차지
- **모로코 사건**(⇄ 프랑스, 1905·1911)

5) 포르투갈

- 앙골라 ~ 모잠비크 연결(『장미 빛 지도』 구상, 1886)

6) 파쇼다 사건(수단, 1898)

- 영국(종단) ⇄ 프랑스(횡단), 독일을 견제하려는 프랑스의 양보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수능 특강』, p.130)>

03. 독립국 유지

- **라이베리아**(자유국의 나라, 아프리카 최초의 공화국, 1847)
- **에티오피아**

제국주의와 민족 운동

[★제국주의 열강의 아시아 분할]

01. 영국

- 동인도 회사 설립(1600)과 인도 진출
- 미얀마를 영국령 인도에 병합
-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말레이 연방 결성

02. 프랑스

- 베트남, 캄보디아 등 인도차이나 반도 진출
- 청프 전쟁(1884 ~ 1885)에서 승리
-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 수립(1887)

03. 네덜란드

- 네덜란드 동인도회사(1602) 설립
: 바타비아(자카르타)를 거점으로 향신료 무역 독점
- 네덜란드령 동인도 건설(1800)
: 자와 전쟁(1825 ~ 1830), 자와 섬 장악, 인도네시아 대부분을 식민지로 확보

04. 에스파냐

-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의 도전을 물리치고 필리핀을 식민지화(1837)
: 미국·에스파냐 전쟁(파리 조약, 1898)으로 식민지 상실

05. 러시아

- 시베리아 개척, 이란 침략, 아프가니스탄 진출 시도
↳ 영국이 아프가니스탄을 보호국으로 만들어 러시아의 팽창 견제(1880)



<열강의 동남아시아 분할>

[제국주의 열강의 태평양 분할]

01. 미국

- 하와이 제도를 병합하여 태평양으로 세력 확장
- 에스파냐와의 전쟁(1898)에서 승리 → 쿠바 보호국화 및 필리핀과 괌 섬 식민지화

02. 독일

- 태평양 서부 캐롤라인 제도·팔라우 등을 에스파냐로부터 매입, 비스마르크 제도와 마셜 제도 점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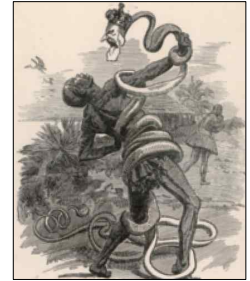
03. 영국

- 오스트레일리아를 식민지로 삼은 뒤 죄수 유배지로 이용(1788), 뉴질랜드를 자치령으로 삼음(1840)

제국주의와 민족 운동(『수능 특강』 단독 기술 NO!!)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

아프리카 마을의 여원 소년 40명은 저마다 고무 바구니를 들고서 한 줄로 늘어섰다. …… 네 바구니가 할당량보다 모자랐다. 냉혹한 명령은 짧고 날카로웠다. 네 명의 건강한 집행관이 양을 채우지 못한 첫 번째 어린이를 붙잡아 손발을 묶고는 기다란 채찍으로 때렸다.
- 아담 호크실드, 『레오폴드왕의 유령』(1998)



01. 배경

- 베를린 회의(1884 ~ 1885)
 - : 서구 열강, 아프리카를 주인 없는 땅으로 선언
 - : 일정 지역을 점령해 실질적으로 지배한 국가가 우선권을 가진다는 분할 원칙 합의
 - : 아프리카 분할 경쟁 시작

02. 북아프리카의 민족 운동

리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스만 제국의 쇠퇴로 20세기 초 이탈리아의 식민 지배 • 알 무크타르의 강력한 저항 운동으로 이탈리아가 효과적으로 지배하지 못함
일제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의 침략(1830) → 30여 년간 민족 저항 → 프랑스의 무력 진압 • 프랑스의 식민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인 정착지 건설, 원주민 차별

03.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함마드 아흐마드, 마흐디 운동(1881 ~ 18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집트, 영국의 지배에 맞서 마흐디(구원자, = 마디) 자처 ✓ 군대 구성, 토지 개혁 추진
에티오피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넬리크 2세(재위 1889 ~ 1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티오피아 통일, 철도와 학교 설립, 신식 군대 창설 • 아도와 전투(1896)에서 이탈리아의 침입 · 격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디스아바바 조약(1896)으로 독립 인정
줄루 왕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샤카 줄루가 주변 부족을 통합하여 왕국 건설 • 줄루 전쟁(= 이산들와나 전투, 18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이아몬드 광산을 차지하려는 영국의 침략 격퇴 ✓ 영국의 지속적인 침략으로 식민지 전략
나미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령 남서아프리카 • 헤레로 족의 무장 봉기(1904) → 독일의 무력 진압
탄자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의 식민 지배와 수탈 • 마지마지 운동(19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킨 체케틸레 주도로 주술사들의 저항 운동 ✓ 목화 나무를 뽑으며 봉기 ✓ 독일의 초토화 전술

개념 Check

- ① 19세기 후반 서양 열강이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식민지 건설을 추진한 정책을 ()라고 한다.
- ② 1898년 아프리카에서 종단 정책을 추진하던 영국과 횡단 정책을 추진하던 프랑스가 수단의 ()에서 충돌하였다.
- ③ 프랑스와 독일은 아프리카의 ()를 둘러싸고 1905년, 1911년 두 차례에 걸쳐 대립하였다.
- ④ 스펜서가 발표한 ()은 적자생존의 원칙을 사회에 적용한 이론으로 제국주의 정책을 뒷받침하였다.
- ⑤ ()은 서남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 카메룬·토고 등을 차지하였다.
- ⑥ 미국은 에스파냐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를 보호국화하였다.

실전문제

01

(가), (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6월 모의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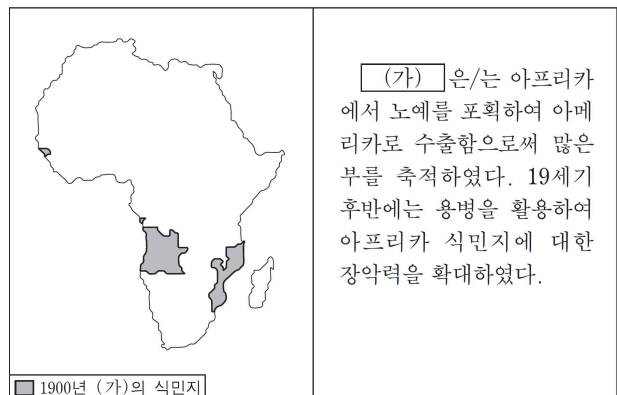


- ① (가) - 아도와 전투에서 에티오피아 패배하였다.
- ② (가) - 카이로와 케이프타운을 잇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 ③ (나) - 줄루 왕국을 침략하여 식민지로 삼았다.
- ④ (나) - 헤레로 족의 봉기를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 ⑤ (가), (나) - 팽창 정책을 추진하며 파쇼다 사건을 일으켰다.

02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수능]



- ①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쿠바를 상실하였다.
- ② 이집트를 보호국으로 삼고 수에즈 운하를 차지하였다.
- ③ 동남아시아에 진출하여 인도차이나 연방을 수립하였다.
- ④ 16세기 동남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향신료 무역을 주도하였다.
- ⑤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연결하는 3B 정책을 추진하였다.

03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수능]



그림은 유럽 열강 중 하나인 이 나라의 국왕 레오폴드(레오폴트) 2세가 아프리카인들에게 행한 가혹한 착취를 풍자한 것이다. 그는 고무, 상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아프리카인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는 과정에서 학살을 자행하였다.

- ① 파쇼다에서 영국과 충돌하였다.
- ② 모로코를 둘러싸고 프랑스와 대립하였다.
- ③ 아도와 전투에서 에티오피아에 패배하였다.
- ④ 줄루족과 벌인 이산들로나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 ⑤ 프랑스 등과 함께 콩고 강 일대를 분할 지배하였다.

04

(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021-9월 모의평가]

- (가) 홍해와 지중해를 잇는 운하가 프랑스인 페르디낭 드 레쎹스의 주도로 착공된 지 10년여 만에 개통되었다. 이로써 유럽과 인도를 오갈 때 남아프리카 아굴라스 곶을 돌아갈 필요가 없어져 항해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다.
- (나) 프랑스 원정대는 가봉에서 동쪽으로 진격했고 영국 군대는 이집트에서 나일 강을 따라 남하하였다. 프랑스군이 먼저 파쇼다에 도착해 요새를 점령했지만 곧 영국군의 도전을 받아 몇 달간 긴장이 지속되었다.

- ① 프랑스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을 수립하였다.
- ② 한반도와 만주의 이권을 두고 러·일 전쟁이 발발하였다.
- ③ 영국과 러시아의 간섭으로 이란 입헌 혁명이 실패하였다.
- ④ 프랑스와 독일의 대립으로 제1차 모로코 사건이 발생하였다.
- ⑤ 영국과 프랑스가 중국을 상대로 제2차 아편 전쟁을 일으켰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제1차 세계 대전(1914 ~ 1918)의 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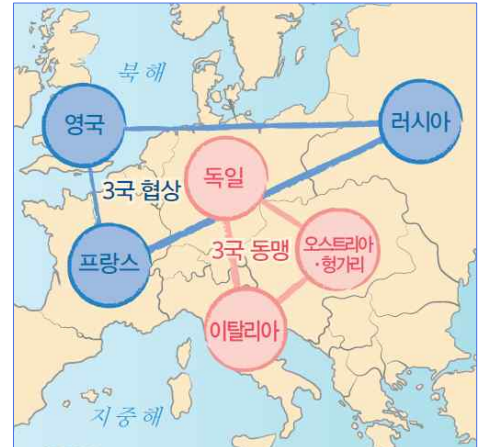
01. 독일의 대외 정책 변화

1) 비스마르크(1815 ~ 1898)의 유럽의 현상 유지와 프랑스 고립화 추진

- 삼제 동맹(독일 · 오스트리아 · 러시아, 1873)
- 오스트리아 ·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와 3국 동맹 체결(1882)

2) 빌헬름 2세(㉓, 재위 1888 ~ 1918)의 대외 팽창 정책

- 3B(베를린 ~ 비잔티움 ~ 바그다드) 정책 추진
- 모로코 사건(1905 · 1911)
- 범게르만주의 표방
- : 발칸 지역에서 오스트리아 · 헝가리 제국 후원
- ⇨ 범슬라브주의(러시아의 세르비아 후원)



<3국 동맹과 3국 협상>

02. 영국의 제국주의 정책

- 3C 정책 추진
- 빌헬름 2세의 정책에 맞서 삼국 협상 성립(1907)
- : 러 · 프 동맹(1894) → 영 · 프 협상(1904) → 영 · 러 협상(1907)

03. 발칸 전쟁(1912 ~ 1913)

- 발칸 반도(유럽의 화약고, 범게르만주의 ⇨ 범슬라브주의)
- 발칸 반도의 여러 민족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발발
- 제1차 발칸 전쟁(1912)
- : 제1차 발칸 동맹(세르비아 · 불가리아 · 그리스 · 몬테네그로 등) ⇨ 오스만 제국
- 제2차 발칸 전쟁(1913)
- : 세르비아의 알바니아 지역 병합 시도 → 오스트리아의 방해로 좌절 → 세르비아, 그리스 등이 제2차 발칸 동맹 결성 → 제2차 발칸 동맹국과 불가리아의 충돌
- : 불가리아의 패배와 영토 상실

04. 사라예보 사건(1914. 6월 28일)

- 오스트리아 ·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 인이 다수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병합(1908)
- 세르비아의 청년이 보스니아의 사라예보를 방문한 오스트리아 ·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 암살
- 오스트리아 ·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 포고
- : 동맹국과 협상국의 참전
- : 오스만 제국과 불가리아의 동맹국 가담, 동맹국이었던 이탈리아는 협상국 측에 가담(1915)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제1차 세계 대전(1914 ~ 1918)의 전개(문학 작품, 『황무지』·『서부 전선 이상 없다』)]

01. 독일군의 진격

- 벨기에 침공(1914) → 프랑스로 진격 → 영국의 프랑스 지원
- 마른(1914) 전투, 솜 전투(1916)
 - : 독일군의 패배
 - :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짐, 참호전(신무기의 공격을 피해 참호를 파고 전투) 전개

02. 전세의 변화

- 영국 해군이 북해를 봉쇄하여 독일의 고립 시도
-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전개
 - : 미국의 여객선 루시타니아 호 침몰(1915. 5월 7일)
 - ↳ 미국 의회의 대독 선전 포고 결정(1917. 4월 6일) → 미국의 참전 → 연합국에 유리하게 전개
-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 발생(1917. 3월)
 - : 독일, 불가리아, 오스만 제국 등과 단독 강화(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체결(1918)
- 독일은 모든 전력을 서부 전선에 집중하여 프랑스를 총공격하였으나 실패

03. 전쟁 종결

- 동맹국의 탈퇴와 항복
 - : 오스만 제국, 불가리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등
- 독일 쾰른 군항의 수병들의 반란 및 11월 혁명 발생(1918)
 - : 빌헬름 2세(재위 1888 ~ 1918)의 폐위 → 네덜란드 망명
 - : 군주제 폐지와 공화국 선포
- 협상국 ~ 독일 임시 정부의 휴전 조약 체결(1918. 11월 11일)
 - : 전쟁 종결(1918. 11월 18일)
- 국민의회 소집(바이마르)
 - : 바이마르 헌법 채택(1919. 2월) → ★바이마르 공화국(Weimarer Republik) 출범

04. 전쟁의 특징

- 전·후방의 구분 없이 국가 전체의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총력전 전개
- 기관총, 탱크, 전투기, 잠수함, 독가스 등 신무기 등장

05. 문예 사조의 변화

- 다다이즘(Dadaism)과 초현실주의(Surrealism)의 등장
 - : 보수적인 문화 및 예술에 대한 기존의 가치 부정과 전쟁 반대 운동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제1차 세계 대전(1914 ~ 1918) 이후의 세계]

01. 파리 강화 회의(1919. 1월 ~ 1920. 1월)

-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전승국 대표들이 참가해 전후 처리와 평화 수립 논의
- 윌슨이 제창한 평화 원칙 14개조에 따라 진행하기로 하였지만, 실제로는 전승국의 이익과 패전국에 대한 응징이 강하게 작용

02. 베르사유 조약(1919. 6월)과 베르사유 체제

- 독일의 모든 식민지 상실
: 인구나 영토가 1/10로 감소, 알자스·로렌 지방을 프랑스에 양도
- 군비 축소, 막대한 배상금 지불

제119조 독일은 해외 식민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요구를 동맹국과 연합국의 주요 국가에 넘겨준다.
제173조 독일에서 일반 의무병제는 폐지된다. 독일 육군은 지원병제로만 조직하고 보충할 수 있다.
제235조 독일은 동맹국과 연합국의 청구액이 확정되기 전에 우선 배상 위원회가 정하는 지급 방법에 따라
…… 200억 마르크 급화에 상당하는 돈을 1921년 4월까지 지불한다.

03. 국제 연맹(League of Nations) 창설(1920. 1월)

- 윌슨 대통령의 제창, 파리 강화 회의의 결의
: 제1차 세계 대전에 대한 반성과 평화를 위한 노력
: 최초의 국제 평화 기구(제네바)
- 미국 등 강대국의 불참, 독일과 소련 제외[독일(1926), 소련(1934)의 가입], 군사적 제재 수단 미비

04. 부전 조약의 체결

- 로카르노 협정(1925)
: 독일의 알자스·로렌 지방 포기, 라인란트 영구 비무장화, 독일의 국제 연맹 가입 결정(1926)
- 켈로그·브리앙 조약(= 파리 조약, 1928)
: 미국(켈로그), 프랑스(브리앙), 영국 등 15개국 합의

제1조 조약 체결국은 국제 분쟁을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을 비난하며,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제2조 조약 체결국은 상호 간의 분쟁을 오직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한다.

05. 군비 축소 회의

- 워싱턴 회의(1921 ~ 1922), 런던 회의(1930), 제네바 회의(1932)

▶워싱턴 회의(1921 ~ 1922)

중국과 태평양에 대한 열강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군력을 제한하고자 열린 회의이다. 회의 결과 일본은 산둥 반도에 대한 권익을 중국에 반환하고, 21개 조 요구 중 일부를 철회하였다.

06. 독일의 배상금 문제 논의

- 도스안(미국의 자본 8억 달러 투입, 1924)
- 영안(배상 금액을 4분의 1 정도인 358억 마르크로 탕감하고 지불 기한을 59년으로 연장, 1929)
- 로잔 회의(배상금을 30억 마르크로 삭감, 1932)

두 차례의 세계 대전

[★러시아의 혁명]

01. 혁명 이전의 정세

- 산업화로 공업 도시(상트페테르부르크) 발달과 노동자 계급 성장, 볼셰비키 당 설립(레닌, 1903)
- 피의 일요일 사건(1905. 1월 22일)
 - : 러일 전쟁(1904 ~ 1905)에서 열세, 차르(tsar, 이반 4세, 1547 ~)의 전제 정치에 대한 불만 고조
 - : 8시간 노동, 의회 소집, 시민적 자유 등을 황제에게 진정하기 위한 평화로운 군중 시위 발발
 - : 차르 수비대의 무력 진압과 사상자 발생
- 니콜라이 2세(재위 1894 ~ 1917)의 10월 선언
 - : 시민적 자유와 국회 소집 약속 → 두마 의회 개설(1906)

▶ 소비에트(Soviet)

평의회, 대표자 회의를 뜻하는 러시아어로, 일종의 자치 기구이다. 러시아 혁명 때 노동자·병사 대표 소비에트가 결성되었다.

02. 혁명의 전개(1917)

1) 3월(러시아력 2월) 혁명

- 제1차 세계대전 참전과 패전 거듭 → 전쟁 장기화 → 식량 부족, 물자 부족과 물가 폭등
- 페트로그라드에서 식량 배급, 전쟁 중지, 전제 정치의 타도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 파업 발생
- 노동자·병사 대표 소비에트(평의회)를 조직하여 혁명 추진
 - : 니콜라이 2세 퇴위와 로마노프 왕조의 붕괴
 - : 케렌스키(1881 ~ 1970) 주도의 임시 공화 정부 수립

우리는 부서의 창문을 통해 내다보이는 골목에서 울려 퍼지는 여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물가 고를 해결하라!”, “굶주림을 없애라!”, “노동자에게 빵을!” 나와 몇 명 동료들은 즉시 창가로 달려갔다. …… 투쟁적인 분위기에 휩싸인 여성 노동자들의 무리가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우리를 본 사람들이 “나와요!”, “작업을 멈춰요!” 라고 외치면서 손을 흔들기 시작하였다. 눈물치가 창문으로 날아들었다. 우리는 시위에 참가하기로 결심하였다. - 페트로그라드 노벨 기계 제작소 노동자의 회고

2) 11월(러시아력 10월) 혁명

- 케렌스키 임시 정부의 개혁 실패
 - : 전쟁 지속, 토지 제도 개혁 연기 등 미온적 개혁
- 레닌(1870 ~ 1924)의 4월 테제 발표
 - : 전쟁 반대, 사회주의 지향 → 노동자·병사 소비에트와 케렌스키 임시 정부의 대립
- 레닌과 트로츠키(1879 ~ 1940) 중심의 볼셰비키 무력 혁명
 - : 임시 정부를 타도하고 소비에트 정부 수립

임시 정부는 타도되었다. 임시 정부의 각료는 거의 체포되었다. 소비에트 정권은 지주·귀족 및 교회의 토지를 무상으로 농민 위원회에 넘겨 그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또 군대의 완전한 민주화를 이루어 병사의 권리를 지켜 주고, 생산을 노동자가 통제하는 제도로 만들고, 적당한 시기에 헌법 제정 의회를 소집할 것을 보장하고, 도시에 대한 곡물 공급과 농촌에 대한 생필품 공급에도 신경을 쓰며, 러시아에 사는 모든 민족에게 진정한 자결권을 보장할 것이다. -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의 선언문(1917. 11. 8.)

두 차례의 세계 대전

[★혁명 이후의 러시아]

01. 레닌의 일당 독재

-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1918) 체결
: 폴란드, 발트해 연안, 벨로루시의 할양
: 우크라이나의 독립 승인
: 전쟁 배상금 지급
- 토지, 산업의 국유화 등 사회주의 개혁 추진
- 내전(백색군 ⇄ 적색군) 발생
- 코민테른(Comintern) 창설(1919 ~ 1943)
: 제3차 인터내셔널

▶레닌(1870 ~ 1924)



- 활동
: 1900년 독일 망명 『이스크라(불꽃)』 창간
: 1905년 러시아 귀국
: 1907년 스위스 망명
: 1917년 러시아 귀국
불세비키 혁명

- 주요 저술
: 『제국주의론』(1917)
- 주장
: 농민에게 토지를!,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02. 레닌의 신경제 정책(Novaya Ekonomicheskaya Politika, 1921 ~ 1928)

- 급속한 공산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해결과 국민 불만 해소
- 시장 판매와 같은 자본주의적 요소의 일부 도입
: 개인 농장 부활, 소기업인과 관리자들과의 성장 → 네프 맨(NEP men)

1. …… 농촌 경제를 강화시켜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 국가가 식량, 원료 및 사료들을 조달하는 방법으로써 식량 할당 징발제 대신에 현물세를 실시한다.
2. 이 현물세는 식량 할당 징발제를 통하여 지금까지 부과된 액수보다 적어야 한다.
3. 현물세를 납부하고 나서 농민들의 손에 남는 모든 식량과 원료 및 사료의 처분은 그들의 재량에 맡기며, ……
- 신경제 정책에 관한 제10회 당 대회 결의(1921. 3월)

03.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USSR, 1922. 12월 ~ 1991. 8월) 수립

- 소비에트 러시아 중심
: 우크라이나, 벨로루시(벨라루스) 등 주변의 소비에트 정부 흡수

04. 스탈린(1878 ~ 1953)의 독재 체제

- 소련 공산당 서기장(1922 ~ 1953)
- 소련 국가평의회 주석(1941 ~ 1953)
: 공산당 1당 독재 강화(스탈린주의)
- 급속한 산업화 목표
: 신경제 정책을 포기하고 토지와 농민을 묶어 집단 농장으로 운영
↳ 1930년대 농업 위기 초래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실시
↳ 제1차(1928 ~ 1932), 중공업 육성, 공장과 댐을 건설하고 새로운 광산 개발



▶ 윌슨의 14개조 평화 원칙(『수능 특강』, p.150)

- 1. 공개적으로 체결된 공공연한 강화 조약 이외에는 이후 어떤 비밀스러운 국제적 양해도 있을 수 없다.
- 5. 식민지 주권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관련 주민의 이익은 앞으로 지위가 결정될 정부의 정당한 권리 주장과 동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다룬다는 원칙을 엄격히 준수한다. 또한 모든 식민지의 요구들에 대해 자유롭고 편견 없이 또 절대적으로 공정하게 조정한다.
- 14. 강대국과 약소국 모두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 보전을 상호 보장하기 위해 국가들 간의 특정 협약 하에 하나의 일반적인 연합 체제가 형성되어야 한다.

개념 Check

- ① 제1차 세계 대전 직전의 3국 협상국에는 영국, 프랑스, ()가 있었다.
- ② 1914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암살당한 () 사건을 계기로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였다.
- ③ 미국은 제1차 세계 대전 중 독일이 전개한 ()을 계기로 협상국 편에 참전하였다.
- ④ 니콜라이 2세는 ()을 계기로 두마(의회)의 입법권 조장 등 개혁을 약속하였다.
- ⑤ 1917년 11월에 러시아에서 볼셰비키를 중심으로 노동자와 병사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켜 임시 정부를 무너뜨리고 ()를 수립하였다.
- ⑥ 러시아 혁명의 성공 후 레닌은 급격한 공산화에 따른 경제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을 시행하였다.
- ⑦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은 전승국과 ()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해외 식민지를 상실하였다.
- ⑧ 1920년에 창립된 ()에는 미국이 불참하였고, 독일과 소련은 제외되었다.

실전문제

01

다음 가상 편지에서 밑줄 친 '조약'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17-수능]

친애하는 000 장관님

사라예보의 총성으로 시작된 전쟁이 끝난 지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두 나라는 평화와 인류애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로카르노 조약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두 사람의 주도 아래 이번 8월에 체결된 조약은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외무장관 아리스티드 브리앙 드림

- ① 국제 연맹을 창설한다.
- ② 해군의 군비를 감축한다.
- ③ 독일의 전쟁 배상금을 삭감한다.
- ④ 전쟁을 국가 정책이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 ⑤ 독일은 해외 식민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03

다음 가상 편지에서 밑줄 친 '전쟁'의 결과로 옳은 것은? [2021-9월 모의평가]

친구여.

러시아가 우리 제국을 위협하여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곳 빈을 포함한 유럽의 엘리트들은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이미 예상했었네. 한 달여 전 발칸의 테러리스트가 초래한 우리 황실의 비극으로 그리고 마침내 그 비극이 도화선이 되어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접했네. 이 전쟁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길어질 것 같은 암울한 예감이 드네.

8월에 벗으로부터

- ① 북독일 연방이 결성되었다.
- ②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되었다.
- ③ 빌헬름 1세가 독일 제국을 선포하였다.
- ④ 러시아에서 피의 일요일 사건이 일어났다.
- ⑤ 독일이 식민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였다.

02

(가), (나)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6월 모의평가]

○○○학회 학술 대회: 러시아 혁명과 전쟁

일시: 2017년 △△월 △△일 장소: □□대학교 □□강당

(가) 에서 러시아가 블리해지자 전쟁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차르가 이를 무시한 것이 2월 혁명의 주요한 원인이었죠.

맞습니다. 러시아에서 혁명은 전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돌이켜보면 '피의 일요일 사건'도 (나) 의 전개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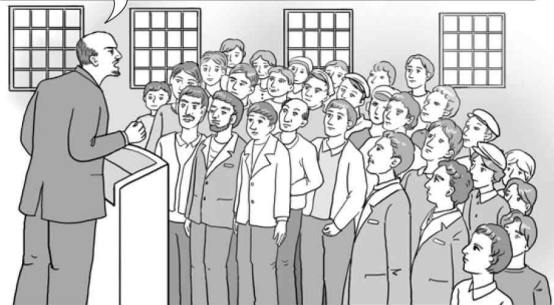


- ① (가) - 독일이 소련과의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면서 확대되었다.
- ② (가) - 두마 설치 등 니콜라이 2세의 개혁이 선언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③ (나) - 러시아에서 농노 해방령이 선포되는 배경이 되었다.
- ④ (나) -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 ⑤ (가), (나) 사이에 두 차례의 발칸 전쟁이 일어났다.

04

다음 연설이 행해진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016-수능]

현 상황에서 우리는 임시 정부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권력을 하나로 집중시켜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해야 합니다.



	(가)	(나)	(다)	(라)	(마)
피의 일요일 사건	두마 (의회) 설치	제1차 세계 대전 개전	3월 혁명 발발	독일과 강화 조약 체결	신경제 정책 실시

- ① (가)
- ② (나)
- ③ (다)
- ④ (라)
- ⑤ (마)

두 차례의 세계 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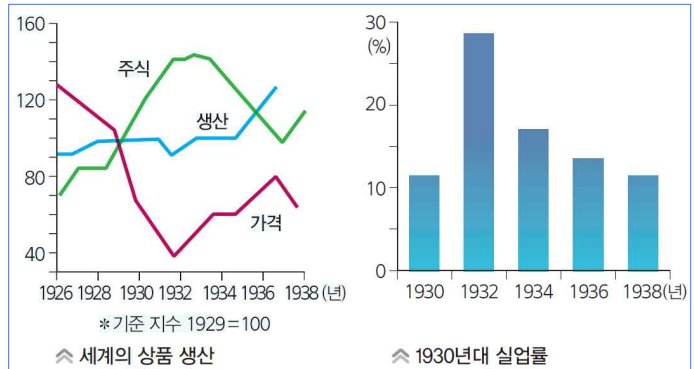
[★대공황의 발생]

01. 배경

-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과잉 생산과 투자, 전체적인 소비 시장의 축소
 - ↳ 미국 뉴욕 증권 거래소의 주가 폭락(검은 목요일, 1929. 10월 24일) → 전 세계로 확산

02. 영향

- 은행, 기업과 공장 도산 → 실업자 급증
- 농산물 가격 폭락
- 전 세계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
 - ↳ 정부의 통제 경제 정책 강화
 - ↳ 전체주의의 확산



[★자유 진영의 대응]

01.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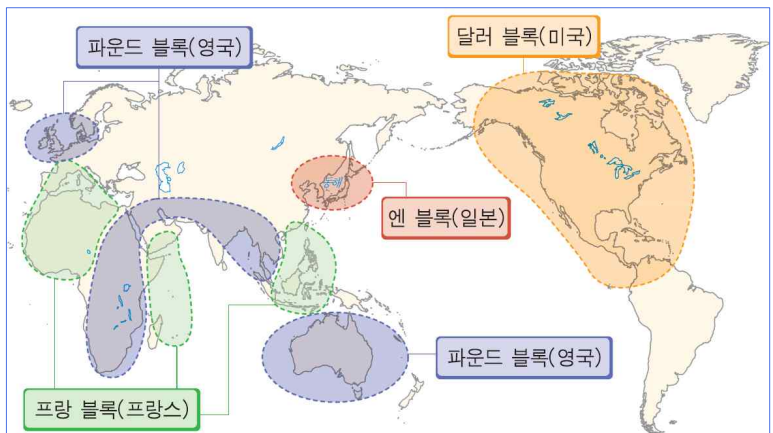
- 루스벨트(1882 ~ 1945)의 뉴딜 정책(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
 - : 테네시 강 유역 개발 공사(국토 개발과 실업자 구제)
 - : 농업 조정법(AAA, 연방 정부가 농업 생산 조절, 1933)
 - : 전국 산업 부흥법(NIRA, 국가가 생산 조절, 최저 가격과 노동 시간 규정, 1933)
 - : 전국 노동 관계법(Wagner Act,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인정, 1935)
 - : 노동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제 실시
-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선린외교 정책 → 달러 블록 형성

02. 영국

- 맥도널드 거국 내각 형성(노동당 내각, 1924 · 1929 · 1931)
 - : 국가 재정 삭감
 - : 공업과 농업의 통제
- 오타와 연방회의 개최(1932)
 - : 보호 관세 중심
 - : 파운드 블록 형성

03. 프랑스

- 좌파 중심 인민전선 내각 수립(1936)
- 노동자 생활 개선 추구
 - : 40시간 노동제, 단체 교섭권 확립 등
- 프랑 블록 형성



<대공황 이후 경제 블록의 형성>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전체주의의 등장]

01. 배경

- 베르사유 체제의 유럽
- : 민주주의 발전, 사회주의와 연계된 노동 운동 활성화
↳ 파시즘 등장

02. 특징

- 국가 지상주의, 일당 독재, 군국주의, 팽창주의
- 언론과 사상 통제, 노동 운동 탄압

파시스트에게 있어서 모든 국가 안에 있으며 국가 밖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파시즘은 일국 일당이며 전체주의자의 국가는 사람들의 온전한 삶에 힘을 준다. 우리들은 정치를 통제하고, 정신을 통제하고, 경제를 통제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파시스트 조합 국가의 한복판에 있다. 우리의 신념은 다음과 같다.

“모든 것은 국가 안에 있다. 국가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국가에 대립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 조지 셀데즈, 『명언 사전』

[각국의 전체주의]

01. ★이탈리아의 파시즘(fascism, 結束主義)

- 전후 물가 폭등, 실업자 증가
- 무솔리니(1883 ~ 1945), 파시스트당 결성(1919)
- : 로마 진군(1922. 10월) → 일당 독재 체제 구축
- : 민주주의와 자유, 사회주의 부정
- 군국주의와 대의 팽창 정책
- : 알바니아 보호국화(1927), 에티오피아 침공(1935), 알바니아 침공(1939)



<로마로 진군하는 파시스트>

02. ★독일의 나치즘(Nationalsozialismus, 파시즘과 인종주의의 조합)



<집회에서 연설하는 히틀러>

-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제·사회 혼란
- 나치당(Nazis)의 총선 승리(1932)
- 히틀러(1889 ~ 1945)
- : 총리로 취임(1933) → 총통 취임(장검의 밤, 1934)
- : 극단적인 민족주의
↳ 인종주의를 내세워 반(反)유대 정책 추진
- : 군국주의와 팽창주의
↳ 국제연맹 탈퇴(1933) → 재무장 선언(1935)
- 괴벨스(1897 ~ 1945) 문화부 장관
- : 의회주의 무시, 개인의 자유 부정, 획일적 사상 통제

03. 일본의 군국주의

- 재벌(자이바쯔)과 군부 및 보수 세력의 결집
- 대륙 침략 전쟁
- : 만주 사변(1931) → 만주국 수립(1932) → 국제 연맹 탈퇴(1933) → 중·일 전쟁 도발(1937)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 전(前) 유럽의 상황]

01. 에스파냐 내전(1936 ~ 1939)

- 좌파 인민 전선 정부 수립(1936. 2월)
- 프랑코 군부 세력의 쿠데타 선언(모로코, 1936. 7월)
- ↳ 독일·이탈리아의 지원 → 본국 상륙 → 프랑코 정권 수립(1939)



<게르니카>

02. 추축국(Axis Powers, 樞軸國) 형성

- 독일·일본(1933), 이탈리아(1937)의 국제연맹 탈퇴 → 방공 협정 체결(1937)

03. ★독일의 팽창(범게르만주의 표방)

- 라인란트 점령(독일과 프랑스·룩셈부르크·벨기에·네덜란드 사이의 경계, 1936. 3월)
- 오스트리아 병합(1938. 3월) → 수데텐 지방 요구(1938. 9월) → 뮌헨 회담(1938. 9월)에서 수용
- 폴란드의 회랑 요구 → 영국·프랑스의 반대 → 폴·영·프 상호 원조 조약 체결
- 독·소 불가침 조약 체결

▶독·소 불가침 조약(1939. 8월 23일)

유럽에서 세력 확장을 도모하던 나치 독일이 전격적으로 1939년 8월 23일에 소련과 상호 불가침을 목적으로 조인한 조약이다. 당시 반공을 강조하던 나치 독일과 자본주의와 파시즘을 비난해 온 소련의 제휴는 영국, 프랑스 등에 충격을 주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전개(1939 ~ 1945)]

01. 독일의 침략

- ① 폴란드 침공(1939. 9월 1일) → 영국과 프랑스의 대독 선언 포고
- ②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침략 → 파리 점령(앙리 페탕, 비시 괴뢰 정권 수립, 1940)
- ③ 독·소 불가침 조약 파기 → 소련 영토로 진격(1941)

02. 연합국의 대응

- 드골을 중심으로 자유 프랑스(영국, 망명 정부) 수립 → 레지스탕스(독일에 대한 항전) 전개
- 영국의 처칠 내각(1940 ~ 1945) → 독일군 상륙 저지

03. 대서양 헌장(1941. 8월)

- 루스벨트와 처칠 회동 → 파시즘 반대, 전후 자유 무역 활성화와 국제 평화 수립의 원칙 천명

04. 태평양 전쟁 발발(1941. 12. 7)

- ABCD(미국·영국·중국·네덜란드) 포위망으로 경제 봉쇄 →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기습

05. 연합국의 반격과 평화 회담

- 미국의 미드웨이 해전 승리(1942) → 독일의 스탈린그라드 전투 패배(1942 ~ 1943) → 이탈리아 항복(1943. 9) → 노르망디 상륙 작전(1944. 6) → 독일 항복(1945. 5) → 일본 항복(1945. 8)
- 카이로 회담(1943. 11월), 테헤란 회담(1943. 11월), 얄타 회담(1945. 2월), 포츠담 회담(1945. 7월)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의 전후 처리]

01. 방향

- 연합국과 패전국 간의 개별 조약 체결

02. 전범 처벌을 위한 국제 군사 재판 개최

- 뉘른베르크 재판(1945 ~)
- 도쿄 재판(1946 ~)

03. 독일과 일본, 오스트리아의 변화

- 미·영·프·소의 독일 분할 관리 → 독일의 동·서 분단(1945)
- 미(美) 군정의 일본 지배
: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1951)으로 일본의 주권 회복
- 오스트리아의 중립국화

[국제 연합(United Nations)의 성립]

01. 과정

- 대서양 헌장(1941. 8月)
: 전후 평화 수립의 원칙을 제시하여 국제 연합 창설의 기초 마련
- 샌프란시스코 회의(1945. 6月)
: 국제 연합 헌장 채택 → 정식 출범(51개국 참가)

▶국제 연합 헌장(『수능 특강』, p.148)

제1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한다.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을 없애고 침략 행위와 그 밖의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나아가 평화를 깨뜨리는 모든 국제 분쟁과 사태를 평화적 수단에 따라,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조정하거나 해결한다.

제24조 국제 연합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 연합 회원국은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안전 보장 이사회에 부여한다.

제42조 안전 보장 이사회는 정해진 조치로는 불충분하다고 인정하거나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필요한 공군·해군 및 지상군에 의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02. 국제 연맹과 국제 연합의 비교

국제 연맹(1920. 1月)	국제 연합(1945. 10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소련 불참 → 소련 가입(1934)• 경제 제재 이상의 제재 수단 無• 본부(스위스 제네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소련 참여 →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 국제 연합군 → 국제 분쟁에 무력 제재• 본부(미국 뉴욕)



▶ 독일의 나치즘

언제나 가장 강한 종족이 살아남아 세계를 지배한다. …… 그렇다면 가장강한 종족은 어떤 종족인가? 그것은 바로 아리아인이다. …… 이런 아리아인을 오염시켜 인류를 퇴보하게 만들려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유대인이다. 유대인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 『나의 투쟁』(『수능 특강』, p.147)

우리는 유대인의 반대자들이다. 유대인은 독일을 돌로 쪼개 놓았고 이것이 바로 제1차 세계 대전 패전과 혁명의 타락을 가져온 화근이었다. …… 유대인은 기생적 생명체이고 창조성 없는 타락한 악령이고, 우리 인종의 의도적인 파괴자이다. - 『괴벨스, 대중 선동의 심리학』(『천재 교과서』, p.198)

▶ 독소 불가침 조약(『수능 특강』, p.147)

제1조 독일과 소련은 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세력과 연합하여 서로에 대해 어떠한 공격도 하지 않는다.
제2조 조약 체결국 한쪽이 제3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다른 체결국은 그 세력을 지원하지 않는다.
제3조 체결 당사자인 양국은 공동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한다.

개념 Check

- ① 미국의 루스벨트는 ()의 극복을 위해 뉴딜 정책을 실시하였다.
- ② 독일은 ()가 1934년 총통으로 취임한 뒤 반유대 정책을 강화하였다.
- ③ 1937년에 독일, 이탈리아, ()은 3국 방공 협정을 체결하여 추축국(樞軸國)을 형성하였다.
- ④ 독일이 1939년에 ()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였다.
- ⑤ 1941년 루스벨트와 처칠은 전후의 평화 원칙을 천명한 () 헌장을 발표하였다.
- ⑥ 일본은 1941년 12월 미국의 하와이 ()을 기습하여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

01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2017-9월 모의평가]

탐구 활동 계획서

- 탐구 주제
- 제2차 세계 대전의 기원을 1930년대 국제 정세를 통해 찾아보기
- 탐구 활동
 1. 독일의 국제 연맹 탈퇴 과정을 조사한다.
 2. 에스파냐 내전의 영향을 알아본다.
 3. (가)
 4. 독·소 불가침 조약 체결 배경을 파악한다.

- ① 알타 회담의 목적을 조사한다.
- ② 방공 협정의 내용을 정리한다.
- ③ 러시아 내전의 경과를 알아본다.
- ④ 뉘른베르크 선언의 배경을 분석한다.
- ⑤ 로카르노 조약의 체결 과정을 파악한다.

03

밑줄 친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019-6월 모의평가]

이 장면은 검은 셔츠단이 로마로 진군하는 모습이에요. 이 사건 직후 무솔리니가 총리로 취임하고, 결국 이탈리아는 전체주의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가)	(나)	(다)	(라)	(마)
베르사유 조약 체결	국제 연맹 창설	켈로그-브리안 조약 체결	대공황 시작	독일의 국제 연맹 탈퇴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 ① (가) ② (나) ③ (다)
- ④ (라) ⑤ (마)

02

(가)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6월 모의평가]

세계사 신문

제2016호 2015년 4월 14일

전후 독일 문학의 대표 작가
귄터 그라스 사망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귄터 그라스가 4월 13일 별세하였다. 고인의 대표작 『양철북』은 나치가 집권하던 시기의 독일 사회를 풍자하고,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된 (가)의 참상을 탁월하게 묘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① 전체주의 확산에서 비롯되었다.
- ② 러시아 혁명의 발발에 영향을 주었다.
- ③ 국제 연합이 창설되는 결과를 낳았다.
- ④ 원자 폭탄의 투하를 계기로 종결되었다.
- ⑤ 진주만 기습 이후 태평양으로 확대되었다.

04

(가), (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021-6월 모의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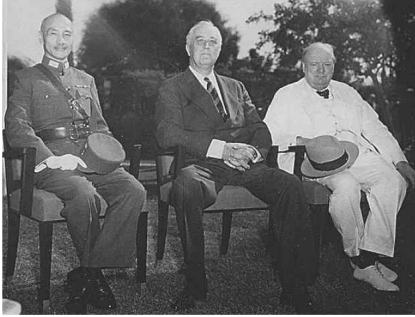


- ① (가) -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였다.
- ② (가) - 독일이 재무장을 선언하였다.
- ③ (나) - 미국이 농업 조정법을 실시하였다.
- ④ (나) - 레닌이 신경제 정책을 시행하였다.
- ⑤ (나) - 무솔리니가 로마 진군을 단행하였다.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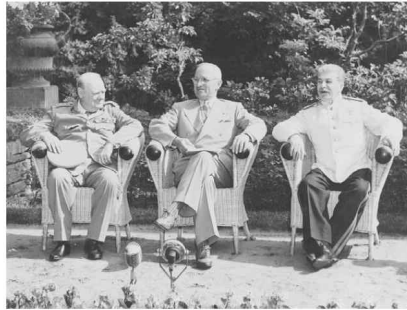
(가), (나) 회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수능특강』, p.157]

(가)



▲ 중국의 장제스,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전후 일본의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나)



▲ 영국의 처칠, 미국의 트루먼, 소련의 스탈린이 독일의 포츠담에서 모여 전후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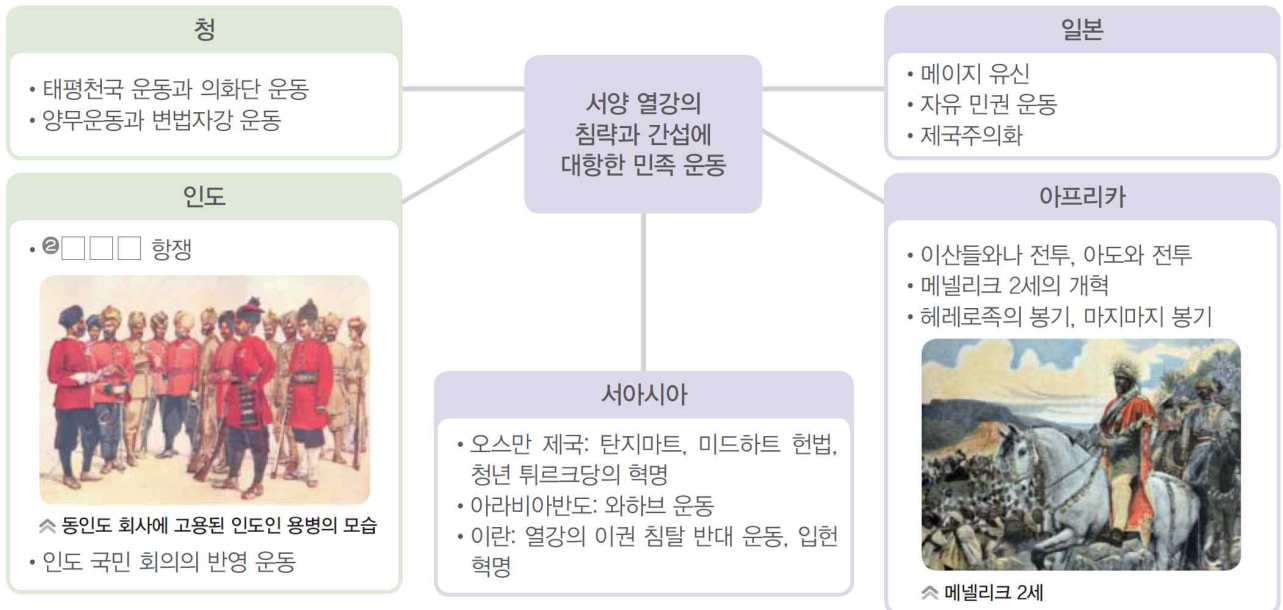
- ① 대서양 헌장이 발표되었다.
- ② 일본이 국제 연맹에서 탈퇴하였다.
- ③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전개되었다.
- ④ 미국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하였다.
- ⑤ 에스파냐 내전으로 프랑코 정권이 수립되었다.



▶ 제국주의의 등장과 세계 분할



▶ 동아시아의 개항과 민족 운동 ~ 인도, 서아시아,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



▶ 두 차례의 세계 대전

